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년도 제5차 회의

1. 일 자 2009년 2월 25일 (수)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현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2호 —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결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세계 주요은행들의 자본확충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에도 자본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간접적으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중앙은행 대출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수단을 확보할 것과 통화정책의 신축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본확충의 목표인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이 수반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향후 자금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행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자본확충펀드의 실효성에 대해 중앙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참여하는지와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위원은 확충된 자본이 '중소기업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등'의 주어진 용도를 위해서 반드시 소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결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결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3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